

담양 용화사 소장 불서의 종류와 가치*

The Variety and the Value of the Buddhist Books in Damyang Yonghwasa Temple

이종수 (Lee, Jong-Su)**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용화사 소장 필사본 불서의 종류와 가치 |
| 2. 용화사의 불서 소장 경위와 연구 성과 | 5. 맺음말 |
| 3. 용화사 소장 목판본 불서의 종류와 가치 | <참고문헌> |

<초 록>

담양 용화사 목담유물관에는 목담성우가 남긴 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불교전적이 다수 소장되어 있어서 몇 차례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전체의 목록을 제시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해 논한 적은 없었다. 필자는 2017년 여름에 그 전체를 조사하여 목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 중에서 근대 이전 불서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판본은 총 73종 303책이 소장되었는데, 그 중 2종 2책은 중국 판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71종 301책이 된다. 시대별로 보면 고려시대 4종 6책, 조선전기 9종 16책, 조선후기 50종 269책, 대한제국 2종 3책, 미상 6종 7책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고려대장경 4종 6책, 계율 4종 8책, 강원교재 26종 234책, 선학 10종 13책, 정토 5종 6책, 의식 10종 12책, 불교사 10종 20책, 기타 5종 5책으로 나눌 수 있다.

필사본은 총 166책이 소장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모두 조선후기로 보이지만 그 연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기별로는 별도 분류하지 않았다. 주제별로는 경론 21책, 계율 4책, 강학사기 111책, 선학 8책, 의식 13책, 사적류 3책, 기타 6책으로 나눌 수 있다.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 중에는 『달마대사관심론』을 비롯하여 계율, 의식, 강학사기 불서의 연구 가치가 높다. 특히 목담대사는 해동울맥 제9대 율사이고 불복장 의식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계율과 의식 관련 불서에서 특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111책에 이르는 필사본 강학사기에는 연담유일과 인악의첩의 사기, 그리고 백과공선의 사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라고 할 수 있다.

要語: 용화사, 목담유물관, 목담성우, 강학사기, 『화엄경소초』, 『달마대사관심론』

* 이 논문은 2018년 순천대학교 학술기반조성비로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su5589@hanmail.net)

접수일: 2018년 8월 19일 최초심사일: 2018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9일
서지학연구, 제75집, 129-14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129>)

<ABSTRACT>

The Mukdam Museum in Yonghwasa Temple in Damyang houses various artifacts left by Mukdam Sungwoo. The collection in the museum contains a considerable amount of Buddhist books and they have been examined several times. But the entire scale of the collection and its value has not been elucidated thoroughly until now. In the summer of 2017, the writer of this study has conducted an overall research on the collection and catalogued the examined book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variety and the value of the pre-modern Buddhist books housed by the Mukdam Museum.

In regard of the block books, there are 303 volumes of 73 books including 2 volumes of 2 books that are printed with Chinese woodblocks. So the total is 301 volumes of 71 books except the Chinese block books. Sorted by periodical orders, the collection has 6 volumes of 4 books published during the Goryeo period along with 16 volumes of 9 books publish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269 volumes of 50 books publish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3 volumes of 2 books published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7 volumes of 6 books from unknown periods. Sorted by subjects, the collection has 4 volumes of 6 books of the Tripitaka Koreana along with 8 volumes of 4 books of Buddhist precepts, 234 volumes of 26 books of teaching materials taught for Buddhist trainees, 13 volumes of 10 books of Seon Buddhism (K. seonhak 禪學), 6 volumes of 5 books of Jeongto (淨土) Buddhism, 12 volumes of 10 books of Buddhist history, and 5 volumes of 5 books in other subjects.

There are 166 volumes of transcribed books. Even though they all seem to be transcrib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age of some volumes. Accordingly, the transcribed volumes have not been classified by period. Sorted by subjects, there are 21 volumes of Buddhist scriptures along with 4 volumes of Buddhist precepts, 111 volumes of individual commentaries on Buddhist scriptures (K. sagi 私記), 8 volumes of Seon Buddhism, 13 volumes of Buddhist rites, 3 volumes of Buddhist history, and 6 volumes in other subjects.

Among the Buddhist books housed in the Mukdam Museum, the writings of Buddhist precepts and rites, and individual commentaries on Buddhist scriptures such as *Dalmadaesagwansimron* (Ch. 達磨大師觀心論) have a great value of research. In regard of the fact that Mukdam was the 9th precept master (K. yulsa 律師) of the Korean Sect of Buddhist Commandments and was an expert of the ritual practice of enshrining sacred materials in Buddhist statues, it is possible to surmise the special significance of the Buddhist precepts and ritual books. And some of the individual commentaries on Buddhist scriptures, included in the 111 volumes of transcribed books, were written by Yeondam Yuil, Inak Uicheom, and Baekpa Geungseon. They also have a high academic value.

Key words: Yonghwasa Temple in Damyang, The Mukdam Museum, Mukdam Sungwook,
Individual commentaries on Buddhist scriptures (K. sagi 私記),
Annotation of the Avatamska Sutra, *Dalmadaesagwansimron* (Ch. 達磨大師觀心論)

1. 머리말

담양 용화사 목담유물관에는 수백 권의 불서와 근대 왕실에서 시주한 공예품, 그리고 불화와 서예 등이 소장되어 있다. 목담이라는 명칭은 默潭聲祐(1896~1981)의 당호에서 가져왔다. 근현대를 살았던 목담대사의 유품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소장품들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조사되었고 책으로도 출판된 바 있으나 학술지에 논문으로서 소개된 예가 별로 없어서 관심 있는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¹⁾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목담유물관에 소장된 근대 이전의 불서들이다. 필자는 2017년 여름에 목담대종사문도회의 요청을 받고 목담유물관 소장 자료를 조사할 기회를 얻어, 불서 전체를 조사하고 『목담대종사, 그의 선·교·율』에 그 목록 소개하고 간략하게 해제를 붙였다. 그런데 당시 책 출판 기일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해제를 쓰느라 내용에 있어서 오류도 있고, 또 너무 소략해서 훗날 학술지를 통해 소개할 생각을 가졌었다. 학술지에 소개함으로써 여러 연구자들이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 중 일부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 서지사항과 이미지가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체를 서비스 하지 못할 뿐더러 단순 목록 소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본고에서는 근대 이전 불서 전체를 분류하여 목록을 제시하고 그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일부 불교전적의 경우 별도의 연구를 통해 서지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한 각론은 본고 이후 향후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용화사 불서 소장 경위와 연구 성과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2. 용화사의 불서 소장 경위와 연구 성과

담양 용화사 목담유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서들은 대부분 목담대사 성우가 남긴 유품들이다. 이 책들은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수집했던 책들도 있을 것이다. 목담대사는 1906년(11세) 백양사 청류암에서 天鏡順旣 선사에게 출가하고, 1914년(19세) 錦海瓊英(1856~1926) 율사에게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함으로써 해동 율맥 제9대 율사가 된다. 1927년(32세) 백양사에서 천경선사의 법맥을 이어 建幢하고 백양사 法務에 취임한다. 1956년(61세) 담양 용화사를 창건하고, 1957년(62세) 이후 불교조계종 제5대·제6대·제7대 종정 및 한국불교태고종 제3대·

1) 목담대종사문도회, 『목담대종사, 그의 선·교·율』 (제주: 목담대종사문도회, 2017). ; 윤동원, “용화사 목담유물관 소장 고전적 고찰,” 『디지털도서관』 84(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16), 73-101.

제4대 종정을 역임한 후 1981년(86세) 용화사에서 입적했다.²⁾

그는 율사이며 강사이며 선사였다. 백양사에서 출가하고 해인사, 내소사 등지에서 경전을 배우고 후학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불복장 의식을 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현재 불복장 의식은 용화사 주지 수진을 비롯하여 성오·도성·무관·경암 등이 전수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수진은 목담대사에게 직접 사사받았고,³⁾ 무관과 경암은 목담대사를 이은 수진에게 계보를 잇고, 성오와 도성은 백양사 壽山知宗(1922~2012)에게 그 계보를 내세우고 있다.⁴⁾ 그런데 백양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했으며 고불총림 방장을 역임한 수산지종이 사실상 목담대사의 제자라는 점에서 보면 모두가 목담대사로부터 복장의식을 전수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담유물관에는 보물 제737호로 지정된 『불조역대통제』(22권 7책, 1576)를 비롯하여 많은 고서들이 있는데 대부분 문화재로서 지정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목담대사가 소장했던 『월인천강지곡』 상권은 현재 국보 제320호로 지정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기탁 관리하고 있다.⁵⁾

장서각 관리의 『월인천강지곡』은 1914년에 부안 實相寺 불상의 복장물에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실상사 법당이 퇴락하고 본존불도 더 이상 수리할 수 없게 되자, 20리 거리에 있던 來蘇寺 주지 白鶴鳴(1867~1929)이 실상사에 가서 전통에 따라 불상을 소각하고 복장물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였다. 당시 복장물에서 발견된 고문서에 의하면, 부안 실상사는 세조의 願堂으로서 1462년(세조 8) 3월에 실상사 삼존불이 조성될 때와 1466년 4월에 실상사가 중창될 때에 효령대군이 보시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1462년 삼존불이 완성되자 효령대군이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여러 불서를 복장물로 안치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1918년 23세의 목담대사가 내소사에서 『원각경』을 수학할 적에 실상사에 참배하러 갔다가, 당시 실상사 주지 金性連으로부터 『월인천강지곡』 상권을 기증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1961년에 목담대사는 당시 광주체신청장 陳鎭洪(1914~2010)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월인천강지곡』을 ‘信傳(믿음으로 전함)’하게 된다.⁶⁾ 진기홍은 그 책을 문화재로 신청하여 1963년 9월 2일 보물로 지정받아 소장 관리하다가 1972년 7월 2일 (주)대한교과서(현재의 미래엔 주식회사)에 넘기게

2) 목담대종사문도회(2017), 705-706.

3)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 - 담양 용화사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31(서울: 한국문화사학회, 2009), 267-286.

4)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재)불교문화재연구소,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디자인넷, 2014), 84-93. 경암의 전법 스승인 무관은 별도의 계보로 자운성우를 내세우기도 한다.

5) 『월인천강지곡』은 상·중·하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94곡이 수록된 상권(국보 제320호)만이 남아서 전한다. 아마도 세 권에 모두 약 583곡이 수록되어 있었을 터이지만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노래는 『월인천강지곡』에 수록된 304곡을 포함하여 498곡이다. 이 노래의 표기는 『용비어천가』·『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한 초기 한글문헌에 속하며, ‘갑인자 병용 한글자본’이라 일컬어지는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석보상절』 이후의 문헌에 보이는 표기법과 달라서 한글 자형의 변천을 아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월인천강지곡』은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가사이며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로 간행한 국보이다.

6) 목담성우, “月印千江曲冊를 陳遞信廳長님께 드리는 말씀.”(1961), 용화사 소장.

되고 2017년 1월에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기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⁷⁾

이처럼 목담대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불서들을 소장했으며 그 중 일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목담유물관에 소장된 불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연구하였고,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종합적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1차 조사는 1970년대에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한국불교전서』를 간행하면서 용화사 소장 전적을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4종의 불서를 저본 혹은 대조본으로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저본으로 활용된 것이 3종이고, 대조본으로 활용된 것이 1종이다. 저본으로 활용된 것은 목판본인 『禪教釋』(1586년 무등산 빙발암본, 『한국불교전서』 제7책 654-657쪽)과 필사본인 『少林通方正眼』(『한국불교전서』 제10책 626-653쪽)과 『龔默集』(『한국불교전서』 제11책 702-713쪽)이다. 그리고 목판본 『禪家龜鑑』(1649년 축서산 통도사본, 『한국불교전서』 제7책, 634-646쪽)은 경본(庚本)으로 활용되었다.

제2차 조사는 1990년대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하여 서지사항과 이미지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소개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적은 386종 814책이다. 목판본과 필사본이 이미지와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목담유물관 소장 전적 전체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제3차 조사는 2000년대에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여 『한국의 사찰 문화재 - 전라남도 II』(2006)에서 355종 721책의 서지사항과 부분적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전적 전체가 조사되지 못하였으며 또 종류별로 분류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4차 조사는 2017년 여름에 필자가 조사한 것이다. 당시 조사한 목록은 『목담대종사, 그의 선교율』이라는 책에 수록한 바 있다.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 각 불서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불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불서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필자는 근대 이전 불서와 근대 이후 불서로 나누고, 다시 근대 이전 불서를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기반하여 윤동원은 목담유물관 소장 고전적을 분석하기도 하였다.⁸⁾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용화사 소장 고전적을 대상으로 주제별, 간행시기, 판본, 간행지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직접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현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요 불서의 서지 사항 및 간략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게다가 필사본의 경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7) 안승준, “『월인천강지곡』의 부안 실상사 소장 경위와 그 전래 과정,” 『장서각』 32(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48-74.

8) 윤동원(2016), 73-101.

목담유물관에는 불서뿐만 아니라 儒書 등 다른 고전적도 있다. 그리고 그 발행 시기도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 이전에 간행되고 필사된 불서만을⁹⁾ 그 대상으로 논하고자 한다.¹⁰⁾ 근대 이전 불서들은 다시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경론·계율·강원·선학·교학·정토·의식·불교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필사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 서는 제4차 조사에서 필자가 분류한 방법에 따라 불서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3. 용화사 소장 목판본 불서의 종류와 가치

<표 1> 목판본 불서¹¹⁾

분류	종책수	시대	불서명	
고려 재조대장경	4종 6책	고려시대	彌勒上生經(1책), 維摩經(1책), 大乘修行菩薩行門諸經要集(1책), 賢愚經(3책)	
계율	4종 8책	조선후기	注梵網經(1책, 안동 봉정사, 1769), 菩薩戒義疏(1책, 안동 봉정사, 1769), 四分戒本如釋(4책, 안동 봉정사, 1769),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2책, 예산 가야사, 1771)	
강원 교재	대교과	1종 1책	조선전기 華嚴經疏註(1책, 서흥 귀진사, 1557)	
	대교과	7종 189책	조선후기	景德傳燈錄(6책, 은진 쌍계사, 1614), 華嚴經疏註(2책, 순천 송광사, 1635), 禪門拈頌集(2책, 보성 대원사, 1636), 華嚴經疏鈔(140책, 낙안 징광사, 1690), 華嚴懸談會玄記(13책, 지리산 쌍계사, 1695), 華嚴經疏科文(동일본 2책, 지리산 국대사, 1739), 華嚴經疏鈔(24책, 덕유산 영각사, 1775)
		1종 1책	미상	禪門拈頌集(1책)
		사교과	1종 1책	조선전기
	2종 2책		조선후기	金剛經口訣(1책, 발행지 미상, 1883), 起信論疏科文(1책)
	4종 8책		미상	金剛經 2종(6책), 法華經要解(1책)
	사집과	6종 8책	조선후기	禪源諸詮集都序(1책, 태인 용장사, 1635), 高峰和尚禪要(1책, 태인 용장사, 1635), 節要私記(동일본 2책, 울산 운흥사, 1681), 高峰和尚禪要(1책, 낙안 징광사, 1686), 都序科目并入私記(동일본 2책, 발행지 미상, 1796), 節要科目并入私記(1책, 발행지 미상, 1796)
	사미과	2종 5책	조선후기	初發心自警文(1책, 충청도 읍사, 1605), 緇門警訓(4책, 지리산 쌍계사, 1695)
	참고 자료	2종 19책	조선후기	大藏一覽集(2책, 발행지 미상, 1609), 大明三藏法數(17책, 고성 운흥사, 1690)

9) 일부 필사본은 일제강점기에 필사된 것도 있다. 책의 성격상 근대 이전에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필사된 대부분의 책은 근대 이후로 분류하였다.
 10) 목담유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근현대 불서는 필사본과 인쇄본으로 나눌 수 있다. 목담대사가 직접 쓰거나 설법한 내용 등을 정리한 필사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法門要抄類 221책, 日記類 16책, 계율 관련 51책, 의식 관련 38책, 사적(용화사·관음사·금수사) 관련 59책, 불교성전 원고 23책, 기타 10여 책이 있다. 그리고 인쇄물은 목담대사의 기고문과 주모글 13종, 목담대사 편찬서 9종, 기타 근현대 간행 180여 종이 있다. 목담대중사문도회(2017), 637-690 참조.
 11) 아래 불서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목담대중사문도회(2017), 471-551을 참조하기 바란다.

분류	종책수	시대	불서명
선학	3종 5책	조선전기	人天眼目(3책, 순천 송광사, 1529), 人天眼目(1책, 진산 서대사, 1530), 禪宗永嘉集(1책, 임천 김윤변가, 1572)
	7종 8책	조선후기	圓頓成佛論(1책, 지리산 능인암, 1604), 勸修定慧結社文(1책, 순천 송광사, 1608), 禪家龜鑑(1책, 양산 통도사, 1649), 禪門五宗綱要(1책, 함경도 석왕사, 1689), 禪源遡流(1책, 발행지 미상, 1889), 禪門撮要(2책, 운문사/범어사, 1907), 禪文手鏡(1책)
정토	1종 1책	조선전기	現行西方經(1책, 발행지 미상, 1448)
	4종 5책	조선후기	現行西方經(1책, 지리산 칠불사, 1710), 念佛普勸文(1책, 합천 해인사, 1776), 觀無量壽佛經(1책, 삼각산 내원암, 1853), 廬山蓮宗寶鑑(2책, 삼각산 내원암, 1853)
의식	2종 2책	조선전기	佛說豫修十王生七經(1책, 광주 증심사, 1461), 禮念彌陀道場懺法(1책, 합천 해인사, 1576)
	7종 9책	조선후기	雲水壇歌詞(1책, 광주 증심사, 1636), 天地冥陽水陸齋義(1책, 나주 용진사, 1642),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책, 순천 흥국사, 1665), 造像經(1책, 금강산 유점사, 1824), 作法龜鑑(3책, 발행지 미상, 1826), 茶毘文(1책, 합천 해인사, 1882), 불설턴디팔양신주경(1책, 발행지 미상, 1908)
	1종 1책	미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책)
불교사	1종 7책	조선전기	佛祖歷代通載(7책, 1472)
	8종 12책	조선후기	青梅集(1책, 지리산 영원사, 1633), 釋迦如來成道記(1책, 지리산 연곡사, 1655), 釋氏源流應化事蹟(4책, 양주 불암사, 1673), 無用堂遺稿(1책, 순천 송광사, 1724), 祇林寺事蹟(1책, 발행지 미상, 1740),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1책, 전주 송광사, 1764), 蓮潭大師林下錄(2책, 영암 미황사, 1799), 楡岾寺事蹟記(1책, 발행지 미상, 1871)
	1종 1책	미상	涵虛集(1책)
기타	경론	3종 3책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1책, 동래 범어사, 1642), 明聖經(1책, 전주 남묘장, 1887), 理惑論(1책, 양산 통도사, 1636)
	중국 판본	2종 2책	五大部直音(1책, 1605), 禪宗正脈(1책, 1615)
합계	73종 303책		

목담유물관 소장 목판본은 총 73종 303책이다.¹²⁾ 이 가운데 2종 2책은 중국 판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71종 301책이다. 고려시대 4종 6책, 조선전기(16세기 이전) 9종 16책, 조선후기(17세기 이후) 50종 269책, 대한제국 2종 3책, 미상 6종 7책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동일본이 있을 경우, 종수로는 1종이지만 책수에 모두 산입하였다. 가령 『화엄경소초』의 경우 총 90권 80책(혹은 79책)이

12) 목담대종사문도회(2017)에서는 67종 303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선문염송집』 분사도감본(1224)과 대원사본(1636), 『화엄경소주』 귀진사본(1557)과 송광사본(1635), 『화엄경소초』 징광사본(1690)과 영각사본(1775), 『고봉화상선요』 용장사본(1635)과 징광사본(1686), 『인천안목』 송광사본(1529)과 서대사본(1530), 『현행서방경』 발행지 미상본(1448)과 칠불사본(1710)을 각각 하나의 종수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판각시기와 장소가 다르므로 각각 다른 종수로 파악하였다.

므로 정광사본(1690)과 영각사본(1775)을 모두 합쳐도 120책이 넘지 않지만 용화사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모두 164책이다. 즉 종수로는 2종이지만 중복되는 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이 책들을 고려대장경, 戒律, 講院教材, 禪學, 淨土, 儀式, 佛教史,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법은 용화사 불서를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려대장경 항목은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고려대장경이 다른 책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계율 항목은 목담대사가 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다. 오늘날 한국 율맥은 19세기 대은낭오(大隱郎昨, 1780~1841)가 지리산 칠불암에서 7일 밤낮을 기도한 끝에 한 줄기 서광이 대은의 머리에 비추어오는 서상수계(瑞祥受戒)¹³를 받은 이후 이어온 율맥이다. 즉 낭오 → 금담보명(金潭普明, 1765~1848) → 초의의순(草衣意詢, 1786~1866) →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문헌에 따라 범해각안 → 제산(霽山, 생물년 미상) → 호은문성(虎隱文性, 1850~1918) → 금해관영(錦海權英, 1856~1926) → 만암종헌(曼庵宗憲, 1876~1946) → 목담성우(默潭聲祐, 1896~1981)의 율맥과 범해각안 → 선곡(禪谷, 생물년 미상) → 용성진종(龍城震鐘, 1864~1940)의 율맥으로 나뉜다.¹⁴ 따라서 율사로서 목담대사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도 항목으로 정하였다.

세 번째 강원교재 항목은 목담유물관 소장 불서 중에서 강원교재와 관련된 전적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강원교육 과정은 조선후기부터이다. 그 교육과정은 沙彌科(4년) - 四集科(2년) - 四教科(4년) - 大教科(3년)로 이어지는데, 사미과에서는 『般若心經』·『初心文』·『發心文』·『自警文』·『沙彌律儀』·『緇門經訓』·『禪林寶訓』 등을 배우고, 사집과에서는 『禪源諸詮集都序』·『大慧普覺禪師書』·『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高峰和尚禪要』를, 사교과에서는 『首楞嚴經』·『大乘起信論』·『金剛般若經』·『圓覺經』·『法華經』을 배우고, 대교과에서는 『華嚴經』·『禪門拈頌』·『景德傳燈錄』을 수학했다.¹⁵ 위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73종 303책 중에서 26종 234책이 강원교육 과목과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전기에 간행된 『선문엄송집』과 『화엄경소주』를 포함시킨 것은 그 책들을 조선후기 강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원교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적들을 별도로 묶음으로써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네 번째 선학 항목과 다섯 번째 정토 항목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전적을 통해 선학과 정토학의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고,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해도 될 정도로 일정 분량의 종수가 소장되어 있다.

13) 서상수계는 불보살형상 앞에서 7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참회하고 호상(好相)을 보고 수계하는 것을 말한다. 호상은 부처님이 직접 정수리를 만져주거나, 빛을 보거나, 꽃비 등의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이다. 『법망경』 경계(輕戒) 제23조 참고.

14) 이자랑, “목담 대종사의 율학과 행,” 『목담대종사, 그의 선교율』 (제주: 목담대종사문도회, 2017), 119-142.

15)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的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서울: 한국사연구회, 2010), 115-142.

여섯 번째 의식 항목은 10종 12책의 비교적 다양한 의식 관련 전적들이 소장되어 있어서 별도 항목으로 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필사본에서 의식과 관련한 묵담대사의 특징적인 전적들이 보이고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일곱 번째 불교사 항목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책들의 내용이 비슷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의 일대기, 사적, 문집 등을 불교사라는 하나의 항목 속에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책들은 모두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판본의 발행 시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판본은 고려대장경 인쇄본 4종 6책과 분사도감 간행본으로 여겨지는 『선문염송집』(권17-18) 1책이다. 고려대장경 인쇄본 중에서 『유마경』, 『대승수행보살행문제경요집』, 『현우경』 3종 5책의 뒤표지에는 묵서로 “大韓光武三年己亥(1899)五月日 海印寺藏經佛事時證參所因皇勅播送侍來功德主聖根首座”라고 되어 있다. 1899년 범운(梵雲) 스님이 화주가 되고 왕실의 지원으로 인출했던 대장경을 대한제국 황제에게 보낼 때 성근(聖根) 스님의 공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19세기 이후 고려대장경 인출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모두 6차례 인출한 기록이 있다. ① 1865년에 인출한 2질 가운데 1질이 현재 오대산 월정사에 봉안되어 있고, ② 1899년에 인출한 4질은 통도사, 송광사 등에도 보내졌고 현재 해인사 수다라장에 봉안되어 있다. ③ 1906년에는 1,400권을 인출하여 금강산 정양사에 봉안하였지만 현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④ 1915년에 인출한 3질 가운데 1질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또 ⑤ 1937년에 만주국 황제의 요청으로 인출한 2질 가운데 1질은 묘향산 보현사에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⑥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인출한 13질은 동아대, 성균관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¹⁶⁾ 이 중에서 두 번째인 1899년에 인출한 고려대장경 중 일부가 용화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용화사 소장본 중에 1576년의 발문이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뒤표지에도 위의 1899년 인출 관련 묵서가 적혀 있다. 이 책은 해인사 외장(外藏)에 있는 목판본이므로, 1899년에 고려대장경을 인쇄할 때 해인사 외장도 함께 인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판본은 『불조역대통재』를 비롯하여 9종 16책이다. 『불조역대통재』(22권 7책, 1576)는 보물 제73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화엄경소주』 귀진사본(3권 1책, 1557)과 『수능엄경요해』(3권 1책, 1547), 『인천안목』 송광사본(3권 3책, 1529) · 서대사본(3권 1책, 1530), 『선종영가집』(2권 1책, 1572), 『현행서방경』(불분권 1책, 1448), 『불설예수시왕생칠경』(불분권 1책, 1461), 『예념미타도량참법』(5권 1책, 1576) 등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후기 판본은 50종 269책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계율 4종 8책, 강원교재 18종 222책(대교과 7종 189책, 사교과 2종 2책, 사집과 6종 8책, 사미과 2종 5책, 참고자료 2종 19책), 선학 7종 8책, 정토 4종 5책, 의식 7종 9책, 불교사 8종 12책, 기타 경론 3종 3책 등이다.

이 가운데 『화엄경소초』 정광사본 전질이 소장되어 있어서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화엄경소초』

16) 이지관 편저, 『가야산 해인사지』(서울: 가산문고, 1992), 293-316.

는 1681년에 전라남도 임자도에 표류해온 중국 상선에 있던 것을 백암성충(1631~1700)이 수집하여 1695~1700년에 걸쳐 복각한 것이 처음이다. 90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16~17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간행된 가흥대장경의 일부이며 천자문 순서로 권차가 새겨져 있다. 당시 백암성충의 간행으로 인해 조선후기 화엄학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화엄경소초』는 1770년대의 화재로 모두 불탔다. 그 후 설파상언(1707~1791)이 중심이 되어 1773~1775년에 걸쳐 다시 복각하여 덕유산 영각사에 봉안하였고, 1852년에 남호영기(1820~1872)가 서울에서 다시 복각하여 봉은사 판전에 봉안하였다.¹⁷⁾ 즉 『화엄경소초』는 징광사본, 영각사본, 봉은사본이 있다. 영각사본과 봉은사본은 여러 기관에서 전질을 소장하고 있지만 징광사본은 아직까지 그 전질이 소장된 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용화사에 징광사본 전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 책의 표지에 ‘雲潭’이라는 법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징광사본 전질은 운담이라는 승려가 소장하다가 목담대사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는 『선문촬요』와 『불설턴디팔양신주경』이 있다. 『선문촬요』는 근대에 경허성우(1846~1912)가 편찬하여 1907년에 청도 운문사에서 상권을 간행하고 1908년에 동래 범어사에서 하권을 간행하였다. 현재 그 목판이 현재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다. 『불설턴디팔양신주경』은 1795년(정조 19) 양주 불암사에서 간행한 판본과 형식적으로 동일하므로 불암사 판본의 복각본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는 판본으로 『선문염송집』, 『금강경』 2종, 『법화경요해』,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함허집』 등 6종 7책이 있다. 『선문염송집』은 진각혜심(1178~1234)이 선가의 화두 1463칙에 대한 여러 선사의 말씀을 엮은 책으로 총 3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화사 소장본은 권17~18의 1책이다. 용화사 소장본은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의 『선문염송집』(보물 제959-2-27호)과 행수와 글자체가 동일하므로 고려시대 혹은 조선초기에 인출한 책으로 보인다. 『함허집』은 표지에 ‘涵虛集’이라는 제목이 써어 있는데, 결장이 많고 권수제나 권미제가 없으므로 원래의 제목은 알 수 없다. 내용은 선가의 화두에 대해 “師云”이라는 형식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직 다른 곳에서 같은 책이 발견된 사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만약 이 책이 함허기화(1376~1433)의 글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문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적 형식으로 볼 때 조선전기 판본일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금강경』 2종, 『법화경요해』,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역시 간기가 결락되어 있어 간행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모두 조선후기 판본으로 생각된다.

17)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충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21(서울: 불교학연구회, 2008), 259-295. ; 강현찬, “조선 후기 『화엄경소초』의 판각과 영정이본대교(靈澄二本對校)본의 의의,” 『한국사상사학』 53(서울: 한국사상사학회, 2016), 81-121.

4. 용화사 소장 필사본 불서의 종류와 가치

<표 2> 필사본 불서¹⁸⁾

분류	책수	비고		
經論	21책	金剛經啓請(1666), 金剛經(述夢瑣言 합본, 미상), 金剛經(1867), 百喻經抄(1886), 大悲經(미상), 度厄經(미상), 圓覺經普眼章(미상), 梵網經(1876), 六祖壇經(미상), 六祖法寶壇經要解(미상), 觀音經(미상), 維摩經疏(미상), 한글 지장경(미상), 한글 천지팔양신주경(미상), 天地八陽神呪經(미상), 太子經(미상), 新華嚴經論(1897), 達磨大師觀心論(미상), 顯正論(1874), 修心寶書(미상), 觀音靈課經(미상)		
계율	4책	①律文要抄(1914), ②四分律戒本註抄(미상), ③沙彌律(1941), ④沙彌律儀(미상)		
講院私記	대교과 화엄기	11책 (현담기)	①懸談重玄記(天, 蓮老記), ②懸談暇日(地玄, 蓮老記), ③玄談記(黃宇, 蓮老記), ④玄談私記(宇, 蓮老), ⑤玄談記(宙, 蓮老), ⑥玄談私記(玄, 蓮老), ⑦玄談私記(黃宇, 蓮老), ⑧重玄記(黃宇宙洪), ⑨懸談記(권14-20), ⑩懸談記(권21-33), ⑪華嚴玄談記(天, 蓮老)	
		10책 (삼현기)	①三賢記(自日至盈, 蓮老記), ②遺忘記(自日至往, 蓮老), ③遺忘記(自秋至歲, 蓮老), ④遺忘記(自寒至餘, 蓮老), ⑤遺忘記(自日至昃), ⑥三賢私記(自辰至秋, 不公記), ⑦遺忘記(自宿至往), ⑧三賢記(自呂至霜), ⑨夜摩天會(自呂至致, 1886), ⑩華嚴遺稿(自署至雲)	
		13책 (십지기)	①華嚴逐難記(自歲至出), ②十地記(自雨至生), ③遺忘記(自金至闕, 蓮潭親記), ④十地科判說(自麗至崑), ⑤十地記(自崗至闕), ⑥十地記(自麗至玉), ⑦遺忘記(自麗至劍, 蓮老記), ⑧華嚴贅(自麗至劍), ⑨十地畫足(自麗至號, 蓮老記), ⑩十地記(自出至崑), 1894, ⑪十地暇日(自崑至闕, 蓮老記), ⑫闕字私記(振應和尙校正記), ⑬遺忘記(自麗至出, 仁岳記)	
	엄송기	9책	①拈頌記 3책(권1-6, 1824, 白坡巨璇識), ②拈頌記 6책(권3-12, 1828, 白坡和尙講下際)	
	전등기	1책	傳燈記(권1-15)	
	사교과	원각기	12책	①圓覺記(권1), ②圓覺經私記(권1, 蓮老記), ③圓覺記(권3-4, 1867, 蓮老記), ④光明餘輝 2책(권1-2, 蓮老記), ⑤圓覺記(권1, 仁老記), ⑥圓覺記(권1-2, 1867, 仁老記), ⑦圓覺記(권3, 1863, 仁老記), ⑧圓覺記(권4, 1876, 仁老記), ⑨光明記 3책(1869, 仁岳記)
		금강기	10책	①金剛鉢柄 2책(1867, 白坡記謄書), ②金剛記 2책(上-下), ③金剛記 4책(散1-4, 1880), ④金剛記, ⑤金剛經記
		능엄기	7책	①楞嚴私記 2책(乾-坤, 蓮老記), ②首楞記(坤), ③大佛頂記(1901, 仁岳記), ④楞嚴記抄(1869, 碧松庵龍湖大和尙大會中), ⑤楞嚴記畫足(蓮老), ⑥楞嚴私記(蓮老記)
		기신기	4책	①起信私記, ②起信論誌(謄書于安國庵), ③起信記(蓮老記), ④起信論私記逐難(蓮記)
		법화기	1책	法華記
사집과	5책	①禪要記(1858), ②書狀記(1876), ③書狀私記, ④要狀記, ⑤狀要手記合集(1760, 羊岳記)		
사미과	1책	緇門私記(1914)		
研學私記	27책	①八解經 4책(1833, 巨旋書), ②金師子章雲間類解·人明入正理論解, ③愚法小乘五位說, ④八識規矩, ⑤佛法精旨(1908), ⑥法性偈解釋, ⑦大總相法門, ⑧法律, ⑨從傍時覽, ⑩雜化鋪, ⑪雜貨藏, ⑫藏經一覽, ⑬華嚴品目, ⑭法華科圖(震應大和上會下), ⑮諸教行相說(1918), ⑯四教要集抄, ⑰諸經要抄類 7책, ⑱古文畫足(1896, 錦峯會上)		

18) 아래 불서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목담대중사문도회(2017), 552-633을 참조하기 바란다.

분류	책수	비고
禪學	8책	①五宗綱要, ②禪宗淵源, ③少林通方正眼, ④明鏡錄, ⑤宗鏡錄略抄 2책, ⑥佛祖源流, ⑦佛祖概略
儀式	13책	①腹藏眞言, ②腹藏經(1869), ③點眼作法(1919), ④佛舍利利運, ⑤茶毘說(巨璇述), ⑥釋家喪文, ⑦觀音示現名號, ⑧華嚴禮文類 4책, ⑨梵音集, ⑩三證師點筆法
寺跡類	3책	①金剛山普德窟事蹟錄, ②虛舟祖師親筆法語(1879), ③金海大禪師行略(1926)
기타	6책	①直截法門(1943, 漢岩書), ②清虛集, ③參禪歌(1892), ④文昌公四山碑銘(1888), ⑤鰲譯記, ⑥悉曇章(1886)
합계	166책	

목담유물관 소장 필사본은 총 166책이다. 필사본의 경우도 목판본과 비슷하게 경론, 계율, 강학사기, 선학, 의식, 사적류, 기타로 나누었다.¹⁹⁾ 강학사기는 목판본의 강원교재에 대응하고, 사적류는 불교사에 대응하는 분류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경론 21책, 계율 4책, 강학사기 111책, 선학 8책, 의식 13책, 사적류 3책, 기타 6책이다. 필사본은 같은 책을 필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책이 별개이므로 별도의 종수를 표기하지 않았다. 필사본 중에서 경론과 계율은 이미 간행된 책을 그대로 필사하거나 발췌하여 필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적으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많지 않다. 하지만 강학사기, 선학, 의식, 사적류의 경우는 서지학적으로나 불교학적으로나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론으로 분류한 자료 중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필사본이 있어서 주목된다. 그것은 『달마대사관심론』이다. 그 필사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다.

禪是佛心教是佛語凡修真出世者不可偏廢也心口相應稱理而修頓超佛地莫若斯論也是以予與山人道澄同豎願幢募工彫板印施無窮者
大德二年戊戌五月 日誌

이 책이야말로 禪教를 아우르며 이치에 알맞아서 수행자가 읽기에 가장 좋은 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덕 2년인 1298년(충렬왕 24)에 필사자가 승려 도징과 함께 『달마대사관심론』을 판각했다고 하였다. 한편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인 1335년(충숙왕 복위 4)에 간행한 『달마대사관심론』(서울대 규장각 소장, 경상남도 사천 白泉寺 소장)의 말미에 위 인용문과 똑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 다만 “山人道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信士兩三”이라고 적혀 있고, 또 간기에 “元統三年乙亥正月日雞林府開板”이라고 되어 있다. 즉 원통 3년인 1335년에 경주 계림부에서 재가

19) 목담대중사문도회(2017), 463-468에서는 165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식에서 1책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경론, 계율, 강원사기, 선학, 교학, 의식, 사적류,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여기서는 교학을 연학사기에 포함시키고, 강원사기와 연학사기를 강학사기로 묶었다.

신도 2~3명이 판각했다는 것이다.²⁰⁾ 그런데 1335년 간행본과 용화사 필사본의 본문 행자수와 필체가 거의 일치한다. 용화사 필사본은 紙質로 볼 때 조선시대에 필사된 것이 확실하지만 1298년 판본을 모사했다고 한다면, 1335년 간행본은 1298년 판본을 복각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달마대사관심론』의 최초 판각 시기를 1335년에서 1298년으로 올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이 책을 필사할 당시까지는 1298년 판본이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강학사기에 대해 살펴보자. 강학사기는 講院私記와 研學私記로 구분할 수 있다. 私記라는 말은 개인적 기록이라는 뜻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적 이유에서 필사한 모든 자료를 사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선후기 강원 교육의 과정에서 기록한 것을 사기라고 표현해왔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강원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원 교육과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공부의 필요성에 의해 경전이나 논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필사본들도 있다. 이 역시 불교 사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를 ‘연학사기’라고 표현하였다.²¹⁾

용화사 목담유물관 소장 강원사기는 그 분량도 많지만 18세기 후반 연담유일(1720~1799)과 인악의침(1746~1796)의 사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 소장된 불교 사기보다 그 연구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 강원사기는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대교과의 화엄기는 다시 현담기, 삼현기, 십지기로 나눌 수 있다. 현담기는 가흥대장경의 복각본인 『화엄경소초』의 天~荒字卷(8책), 삼현기는 日~生字卷(34책), 십지기는 麗~光字卷(14책)에 대한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는 예로부터 불교 강원에서는 연담유일과 인악의침의 사기를 필사하는 전통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사기의 표지나 내지에 “蓮潭記” 혹은 “仁岳記” 등으로 표기하여 그 사기가 연담유일의 사기를 필사했는지, 아니면 인악의침의 사기를 필사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강원사기 중에는 소장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蓮潭記” 혹은 “蓮老記”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연담유일의 사기를 필사한 것이며, “仁岳記”로 표기된 것은 인악의침의 사기를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담유일의 것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사기는 <표 2>의 책명 옆 괄호에 “蓮潭記” 등으로 표기했듯이, 현담기 8종 8책(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삼현기 4종 4책(①, ②, ③, ④), 십지기 4종 4책(③, ⑦, ⑨, ⑩), 원각기 3종 4책(②, ③, ④), 능엄기 3종 4책(①, ⑤, ⑥), 기신기 2종 2책(③, ④) 등 모두 24종 26책이다. 이 중에서 십지기의 ③유망기(自金至闕)에는 “蓮潭親記”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연담유일의 친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인악의침의 것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는 십지기 1종 1책(⑬), 원각기 5종 7책(⑤, ⑥, ⑦, ⑧, ⑨), 능엄기 1종 1책(③) 등 총 7종 9책이다.

20) 남권희, “영남대학교 도서관 南齋文庫 소장 佛教文獻의 서지 연구,” 『민족문화논총』 58(대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177-229.

21)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강학사기의 종류와 정본화의 필요성,” 『남도문화연구』 33(순천: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7), 9-35.

한편, 용화사 강원사기에 백파공선(1767~1852)의 사기가 많이 보이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백파공선은 19세기 중반 초의의순(1786~1866)과 선 논쟁을 펼쳤던 대표적인 선사이다.²²⁾ 선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만큼 그의 사기도 禪 관련 불서에 집중되어 있다. 대교과의 ①염송기 3책(권1-6)에는 “大清道光三年甲申二一日下澣白巖沙門白坡巨璇識”라고 되어 있으므로 1823~1824년 경에 백파공선이 직접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②염송기 6책(권3-12)에는 “道光八年黃鼠天中節書畢于長城白羊山雲門庵白坡龕尙禪講下”라고 되어 있으므로 1828년에 백파공선이 백양산 운문암에서 강의할 때 제자들이 필사하였던 것 같다. 또한 사교과의 ①금강발병 2책(1867)에는 “白坡記騰書”라고 하였으므로 백파공선 사기를 그 제자들이 필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학사기 ①팔해경 4책(1833)에도 “大清道光十三年癸巳孟秋白坡老漢巨旋書于玉川郡靈龜山少林室中”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833년에 백파공선이 필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백파공선이 『금강경오가해』에 합쳐, 장수, 소명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이처럼 용화사에 백파공선의 필사본이 많은 것은 그 책들을 소장했던 묵담대사가 백양사에서 출가하고 그 법맥을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사기에는 장서기나 필사기 등이 적혀 있어서 필사 시기나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가령 사교과의 ④능엄기초(1869)에는 “己巳元月咸陽碧松庵龍湖大和尚大會中同做錄”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1869년 1월 지리산 벽송암 용호화상의 강의를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교과의 ②기신론지에는 “騰書于安國庵”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리산 안국암에서 강의한 내용을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학 분야에서 ③소림통방정안은 백파공선의 저술로 인정받아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의식 분야에서 ①복장진언, ②복장경은 묵담대사가 불복장 의식 전수자임을 나타내는 필사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불복장 의식의 계보는 모두 사실상 묵담대사로부터 이어졌으므로 이 필사본들은 그 의식 전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③점안작법과 ⑩삼중사점필법은 불상 점안 의식과 관련한 중요한 문헌이다. ③점안작법에는 “世尊應世二千九百四十六年己未四月 禁足日書于白羊寺清流洞觀音室”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1919년 4월 백양사에서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⑩삼중사점필법은 종이 포갑 안에 2부(其一과 其三)의 점철본이 있다. 원래는 4부였는데 다른 2부(其二와 其四)는 분실되었다.

사적류의 ③금해대선사행략에는 “佛紀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之元月人日 龜山後學映湖鼎鎬 撰”이라고 하였으므로 1926년에 영호정호 박한영(1870~1948)이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문헌으로서 ①직절법문은 오대산 상원사 승려 한암종원(1876~1951)이 묵담대사에게 보낸 편지로서 “昭和十八年癸未五月上浣 清涼山人漢岩書于如來塔下文殊道場上院寺室中”라는 글을 통해 1943년에 썼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⑤번역기와 ⑥실담장은 불경 번역에 있어서 梵語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22) 정병삼, “백파와 초의의 선론과 선논쟁,” 『韓國思想과 文化』 86(서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91-218.

5. 맺음말

이상에서 담양 용화사 소장 근대 이전 불서의 소장경위, 그리고 그 목관본과 필사본의 종류와 가치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관본은 총 73종 303책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2종 2책은 중국 판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71종 301책이 소장되어 있다. 시대별로 보면 고려시대 4종 6책, 조선전기(16세기 이전) 9종 16책, 조선후기(17세기 이후) 50종 269책, 대한제국 2종 3책, 미상 6종 7책의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를 고려대장경(4종 6책), 계율(4종 8책), 강원교재(26종 234책), 선학(10종 13책), 정토(5종 6책), 의식(10종 12책), 불교사(10종 20책), 기타(5종 5책)로 분류하였다.

필사본은 총 166책이 조사되었다. 필사 시기는 모두 조선후기로 보이지만 그 연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 분류하지 않았다. 주제별 분류는 목관본과 비슷하게 경론(21책), 계율(4책), 강학사기(111책), 선학(8책), 의식(13책), 사적류(3책), 기타(6책)로 나누었다. 필사본은 같은 책을 필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책이 별개이므로 별도의 종수를 표기하지 않았다.

목관본과 필사본 주제별 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강원 교육과 관련되거나 계율과 의식과 관련되는 불서가 특징적이라는 점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목담대사는 해동율맥 제9대 율사이고 불복장 의식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계율과 의식 관련 불서의 소장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학 관련 불서들이 많은 것은 조선후기 불교 강원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목담대사의 학문적 넓이를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111책에 이르는 필사본 강학사기는 동국대 도서관을 제외하면 단일 기관에서 소장한 사기로는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사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담유일과 인악의첩의 사기, 그리고 백과공선의 사기에 대한 연구는 용화사 사기를 빼놓고 논해질 수 없을 정도이다.

목담유물관 소장 근대 이전 불서는 그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지학·불교학·불교사학·불교의식학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목록이 2017년에 간행된 『목담대종사, 그의 선·교·율』에 제시되어 있는데, 향후 근대 이전 불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가 그러한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현찬. “조선 후기 『화엄경소초』의 판각과 영정이본대교(靈澄二本對校)본의 의의.” 『한국사상사학』 53(2016). 81-121.
- 남권희. “영남대학교 도서관 南齋文庫 소장 佛敎文獻의 서지 연구.” 『민족문화논총』 58(2014). 177-229.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재)불교문화재연구소.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서울: 디자인 멧, 2014.
- 목담대종사문도회. 『목담대종사, 그의 선·교·율』. 제주: 목담대종사문도회, 2017.
- 목담성우. “月印千江曲冊를 陳遞信廳長님께 드리는 말씀”(1961). 용화사 소장.
- 안승준. “『월인천강지곡』의 부안 실상사 소장 경위와 그 전래 과정.” 『장서각』 32(2014). 48-74.
- 윤동원. “용화사 목담유물관 소장 고전적 고찰.” 『디지털도서관』 84(2016). 73-101.
-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21(2008). 259-295.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강학하기의 종류와 정본화의 필요성.” 『남도문화연구』 33(2017). 9-35.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의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2010). 115-142.
- 이지관 편저. 『가야산 해인사지』. 서울: 가산문고, 1992.
- 정병삼. “백과와 초의의 선론과 선논쟁.” 『韓國思想과 文化』 86(2017). 191-218.
- 최인선. “『조상경』과 현대의 불복장 - 담양 용화사 수진스님 불복장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31(2009). 267-286.